

## ‘고속철 표’ 주말·휴일엔 하늘의 별따기

유독 적은 호남선 KTX  
꼬마열차 ‘산천’ 집중 배차  
수송 인원 부산의 3분의 1  
관광객·기업 유치에 찬물  
광주 정치권 KTX 증편 촉구



광주송정역의 KTX배차가 영남 지역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수도권을 오가는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광주 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말·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고속열차(KTX)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타 광역지차단체와 비교해 유독 송정역의 KTX 배차 횟수가 적은 데다, 그나마도 일반 KTX 정원(편당 20량 955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꼬마열차인 ‘KTX 산천열차(편당 10량 377석)’를 집중 배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선 “고속철마저 호남을 확대하느냐”며 광주 송정역 KTX 이용객 증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천열차 대신 일반 KTX 배차를 늘리고, 주말·휴일 시간대 열차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하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당 주관으로 24일 오후 11시 40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훈 민주당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사·구 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KTX 증편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 송정역 KTX 증편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KTX 배차에 대한 ‘호남 차별’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레일의 2022년 1~12월 기준 KTX 1일 왕복운행 횟수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에는 평일 46편, 주말 48편이 오가고 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23편은 꼬마열차인 KTX 산천 열차다. 송정역의 수송 가능 인원도 그나마 운행편수가 많은 주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만2546명에 그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인구가 광주와 유사한 울산은 하루 평일 56편, 주말 58편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KTX 산천열차도 6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말 수송 가능 인원도 광주보다 2만명 가까이 많은 5만1922명에 이른다.

대구나 부산과 비교하면 광주 송정역의 KTX 배차 규모는 초라할 정도다. 대구는 평일 104편, 주말 121편이 배차돼 있으며, 특히 산천열차는 전체의 10%도 안되는 10편뿐이다. 부산도 평일 102편, 주말 119편이 배차돼 있는데, 대구와 마찬가지로 산천열차는 10편만 운행 중이다.

광주와 달리 일반 KTX가 집중배차된 대구와 부산의 주말 수송 가능 인원은 각각 10만9775명, 10만7865명으로, 광주의 3배 수준을 넘어선다.

여기에서 경부선에는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열차 2대를 연결해 용량을 늘린 ‘중편열차’까지 투입되고 있지만, 광주 송정역에는 단 한번도 운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유독 호남만을 확대하는 KTX 배차정책

은 광주시민의 교통 복지 혜택 저하는 물론 관광객 유인,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병원 진료나 업무차 수도권을 방문하는 지역민과 수도권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들의 경우 주말을 맞아 광주 집에 오려해도 최소 1~2주 전에는 예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성인(23·광주시 북구)씨는 “갑자기 광주 집에 일이 생기거나 한번 내려 가려면 최소 1~2주 전에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할 수 없이 금요일 오전 수업을 빼먹고

목요일 밤 마지막 열차나 금요일 아침 첫차를 예매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사회에선 일단 급한 대로 현재 운행 중인 KTX 중 산천 열차 배차율을 타 지역처럼 10%대로 줄이고 일반 KTX를 집중 배차해야 하며, 최소 금요일과 주말만이라도 KTX를 증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해외 관광객 급증 추세에 맞춰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배차를 요구하는 의견 등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측은 “이용객 증가에 비해 고속열차 운행 편수(공급 좌석수)는 정체돼 열

차표 예매가 점점 힘들어 지고, 주말 열차표는 보통 전에 매진될 정도”라면서 “고속열차 운행에 지역적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광주송정역 고속열차를 증편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송정역의 평일·주말 포함한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개통 초기인 2015년 1만 6000명에서 2019년 2만 5000명까지 증가하다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1만 500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2만 6000명대로 빠르게 회복하는 등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尹, 방미 때 ‘한국전 참전’ 미군 3명에 무공훈장

수류탄에 몸 던져 부하 희생 막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3명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한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친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도중 한미 주요 인사 300여 명과 감사 오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훈장을 친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랍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가 참석한 가운데 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다.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 중대 중대장(중위)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11월 적군 미그15기 7대와 교전 끝에 4대를 격추했고,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의 희생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 전쟁을 통한 한미동맹의 역사와 의미, ‘미래로 전진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오찬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 크리스천 주니어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남희 씨가 초청됐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준다

당정, 이번주 법안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용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수단 교민 이송작전 군 수송기 현지 도착 ▶2면

일본 시민단체, 나주에 동학혁명 사죄비 ▶6면



최형우 2루타 465개 KBO 신기록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신성자동차**

정부 승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